

중국의 WTO 가입과 세계일류대학계획

박영진(朴泳珍)*

논문 요약

세계일류대학계획은 중국이 고등교육개혁을 목적으로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국책사업이다. 후진타오(胡錦濤) 체제로의 전환과 지방정부, 소수민족, 대학간의 마찰 등으로 인해 아직까지 명확한 실체는 공개하고 있지 않지만, 세계일류대학계획은 현재 진행 중인 고등교육개혁의 핵심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 계획은 국제사회로부터 폐쇄성을 비판받았던 중국이 교육개방을 통해 원만하게 국제사회에 진입할 수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라고 할 수 있다.

반공개(半公開)의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국의 세계일류대학계획은 211, 985공정을 계승하면서, WTO 체제에 이르러 보다 구체적으로 심화되었다. 본고는 논의과정과 사회적 배경을 검토하면서 대학간의 이해관계, 교육적 불균형 등을 극복하고 비교적 원만하게 세계일류대학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교육부의 정책을 조명하였다. 이 과정에서 문헌조사법을 중심으로 중국교육부의 공식, 비공식 문건을 참고하였으나 공개를 꺼려하는 중국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필요에 따라 담당공무원, 교육전문가와와의 인터뷰, 전화문의, 서신교환 등의 방법도 취하였다.

본고는 중국의 세계일류대학정책을 통해 WTO 체제에 대한 교육적 논의가 활발한 우리의 현실적인 선례를 찾고자 했다. 특히 세계적인 대학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과감한 투자와 지원으로 성장시키고자 노력하는 자세와 복잡한 정세 속에서도 스스로의 원칙을 계획하고 지켜나가는 중국의 모습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 주요어 : 세계일류대학계획, 고등교육개혁, 중국교육

* 대전대학교 교직과

I. 서론

90년대 중반부터 지속되고 있는 중국의 고등교육개혁은 211공정(工程)¹⁾과 985공정²⁾을 거쳐 새로운 국면에 진입했다. 20세기까지 중국은 자국의 특수성과 학문의 독창성 등을 주장하면서, 세계적인 대학과 중국의 일류대학을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여겼다. 이는 곧 광활한 국토와 세계인구의 23%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 '중국식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中國特色的社會主義市場經濟體制)'를 서구의 자본주의와 비교해 우열을 논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비교론적 조건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211공정을 기점으로 이러한 시각은 점차 전환되었다. 과거 방만히 운영되었던 대학교육을 반성하면서 고등교육개혁의 논의가 더욱 현실화된 것이다. 특히 211공정은 대학의 구조조정과 중점대학의 집중지원을 핵심으로 1992년부터 10년 동안 733개 대학을 288개 대학으로 합병하고, 대학 내의 시장성 도입을 주도했다. 이 과정에서 장쩌민(江澤民)의 고등교육개혁의 의지가 구체화된 985공정에 힘입어 중국의 대학은 새로운 국면에 이르렀다. WTO 시대에 대한 준비와 기존의 211, 985공정의 내실화를 위한 시대적 요청이 가시적인 고등교육계획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즉 중국의 고등교육이 세계화, 국제화 시대에 적합한 수준인지 여부와 WTO 체제에 적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당위성이 심화되면서, 결국 고등교육의 실제적인 체질개선을 바탕으로 한 '세계적인 일류대학건설 계획(建設世界一流大學計劃, 이하 세계일류대학계획)'이 발표된 것이다.

세계일류대학계획은 211공정과 985공정을 비판하고 보완하기 위한 것이기 보다는 구체적인 현실적인 성과를 얻으려는 계획이다. 개혁개방 이전의 폐쇄적인 이미지를 벗고 WTO 시대에 적합한 국가로 급부상하기 위해 아직도 성장과 발전에 개혁의 무게를 두고 있는 중국은, 211, 985공정 등과 같은 기존의 고등교육개혁정책에 대해 비판보다는 계승하려는 입장이다.

WTO 가입 이후 중국의 변화는 20세기 말의 변화보다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러한 시기 고등교육개혁, 특히 세계일류대학계획은 중국이 교육개방을 통해 원만하게 국제사회에 진입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 주는 척도라고 할 수 있다.

세계적인 교육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대학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은

- 1) 95년에 발표된 고등교육개혁 방안으로 중국의 100개 대학을 선정 및 지원해 21세기의 주역을 양성하겠다는 프로젝트. 100개 대학의 선정은 너무 많다는 지적과 WTO 가입 등의 정세변화로 인해 985공정과 세계일류대학계획이 발표되었다.
- 2) 98년 5월 베이징대학 개교 100주년 기념식에서 장쩌민이 연설한 내용에 기초를 둔 고등교육개혁 방안으로 중국의 9개 대학을 선정 및 지원해 하버드대학과 같은 세계적인 대학으로 성장시키겠다는 프로젝트. 세계일류대학계획과 985공정은 혼동될 수 있으나 985공정은 세계일류대학계획의 모태이며, 세계일류대학계획은 985공정의 취지를 구체화 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중 양국의 공통점이다. 오히려 OECD 국가임을 감안할 때 그렇지 않은 중국보다 고등교육분야의 경쟁력이 부족한 것도 부정할 수 없다. 이에 미루어 중국의 세계일류대학계획을 조사, 연구한다는 것은 WTO 체제에 대한 교육적 논의가 활발한 우리에게 좋은 선례를 남겨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을 감지하고 중국의 세계일류대학계획의 배경과 전개과정, 내용과 현황 등을 조사하여, 우리의 현실과 비교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고자 했다.

중국의 세계일류대학계획은 아직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는 장기적인 계획이다. 그러나 중국정부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 중인 국책사업으로, 직접적이고 막대한 지원이 보장되어 있어서 성공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비교적 긍정적인 전망이 가능하기까지, 중국 정부의 노력을 살펴보면서 WTO 체제에 즈음한 한국정부와 고등교육정책을 되돌아볼 수 있을 것이다.

세계일류대학계획은 구체적인 실체가 명확하지는 않은 과도기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중국의 사회적 특수성 때문에 명확한 시기와 구체적인 추진계획 등이 공개되지 않는 면도 있으나 종신제 주석직의 교체와 새로운 정권의 출현 등으로 인한 정책적 논의의 한계가 세계일류대학계획의 가시적인 모습을 가리는 것 같다. 향후 고등교육개혁정책의 핵심이자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책사업이지만 과거 211, 985공정처럼 그 실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세계일류대학계획의 연구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반공개(半公開)의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는 세계일류대학계획을 조사하면서, 본고는 문헌조사법을 중심으로 중국교육부의 공식, 비공식 문건을 입수하여 폭넓게 참고하였다. 이 중 비공식 문건은 임명을 요구하는 필자의 지인들(중국교육부 행정직 및 연구직 공무원)이 제공하였다. 그러나 이들이 필자에게 문건이나 정보를 제공한 것이 알려지면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주나 참고문헌에 제시하지 못했다. 또한 대외공개를 꺼려하는 중국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세계일류대학계획에 관여하고 있는 담당공무원, 교육전문가와의 인터뷰, 전화문의, 서신교환 등의 방법도 취하였다. 이 과정에서 전체적인 숲을 알려주지 못하고 필자의 질문에 대해 간단한 답변만 전달해 주는 등의 한계도 있었다.

II. 세계일류대학계획의 추진배경

1. WTO 가입과 논의과정

중국은 이미 WTO에 가입한 국가로 사회 전반적인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WTO 가입을 목전에 두었던 90년대 중·후반에는 주로 정치, 경제적인 측면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되다가

21세기에 이르러 점차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되면서 교육계에서도 쟁점이 되었다. 사실 중국 정부는 WTO 가입에 대한 정치, 경제적 논의에 집중하다보니 교육을 포함한 기타 부문에 대해서는 깊은 고려를 하지 않았던 것 같다. 이를 반증해 주듯이, 지난 몇 년간 'WTO 가입과 교육'을 주제로 연구된 논문과 서적이 비교적 산발적으로 출간된 느낌이 든다. 예전의 중국은 국가가 결정하고 방안을 제시하면 하부기관과 학자들은 대부분 적극적으로 동조하거나 묵인하곤 했다. 그러나 WTO 문제는 교육계에서 다양한 방안과 의견이 다각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정치, 경제적 측면의 논의에 매진한 중국정부가 교육계를 통제하지 못한 느낌이 든다. 이는 세계일류대학계획이 발표되기 이전, 중국교육부의 적극성과 순발력이 부족했다는 비판을 가능케 했다. 때문에 중국교육부는 WTO 가입에 따른 교육정책의 '가시적인 선언과 지향점'이 필요했는데, 고등교육분야에 있어서 '가시적인 선언과 지향점'이 곧 '세계일류대학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WTO 가입에 따라 중국정부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는 개방과 교류의 당위성속에서 어떻게 기존의 체제를 유지, 발전시킬 수 있는가이다. 즉 '중국식사회주의시장경제'라는 모호한 구호와 체제하에서 혼란을 최소화 시키고 정권을 유지시키는데 논의의 핵심이 있다는 것이다(최영표 외 2002:82). WTO 시대에서 사회주의라는 '명분'과 시장경제라는 '당위성'을 양손에 쥐고 어떤 것 하나도 놓을 수 없는 모습이 오늘날 중국이 직면한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고등교육개혁을 바탕으로 한 세계일류대학계획은 WTO 가입에 따른 교육계의 체질개선과 더불어 '명분'과 '당위성'을 모두 충족시키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일류대학계획의 기조는 등소평(鄧小平)의 개혁개방정책에서 비롯된 211공정에서 출발한다. 우수대학 100개를 선정하여 집중 육성한다는 211공정을 통해 중국은 고등교육개혁의 가능성과 추진력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보다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개혁안을 고민하게 되면서 장쩌민의 985공정이 등장했다. 물론 장쩌민정부는 등소평과 차별화되면서도 개혁개방의 취지를 계승하려는 입장을 취해야 했기 때문에 985공정은 211공정을 보완하고 연장하는 수준에서 추진되었다. 그 후 985공정은 장쩌민의 조기 실각과 후진타오(胡錦濤)정권의 입각을 즈음하여 세계일류대학정책으로 구체화되었다. 즉 211공정은 985공정과 세계일류대학계획을 추진하게 된 초석이자 배경이며, 장쩌민의 985공정은 세계일류대학계획이 구체화되기 이전의 모체라고 할 수 있다.

985공정으로 세계일류대학계획의 모체가 된 장쩌민은 95년 이후로 푸단대(復旦大), 베이징대(北京大), 칭화대(清華大) 등 전국의 우수한 대학의 기념식에서 고등교육개혁을 주제로 연설을 하곤 했다. 이러한 연설은 곧 중국교육부가 핵심적으로 추진해야 할 교육정책으로 구체화되었다. 현 교육부차관(教育部副部長) 위엔꾸이런(袁貴仁 2002a:1)은 세계일류대학계획이 장쩌민의 연설에 기인함을 강조하고 있다.

일류대학을 건설한다는 것은 장쩌민 동지의 중요한 교육사상이다. ... 일찍이 1995년 장쩌민 동지는 푸단대학 90주년 경축행사에서 “다가올 신세기에 푸단대학을 세계일류 수준의 사회주의 종합대학으로 건설합시다.”라고 언급했다. ... 1998년 베이징대학 100주년 경축행사에서, ...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세계 선진수준의 일류대학이 필요합니다.”라고 했으며, 3년 후 칭화대학 90주년 경축 행사에서도, ... “전국에 세계 선진수준의 일류대학을 건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처럼 장쩌민의 연설은 교육정책 수립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95년을 즈음한 초기(특히 푸단대학에서의 연설), 세계일류대학계획은 고등교육에 대한 직접적인 반성이나 일류대학을 향한 구체적인 방법이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WTO 가입을 직접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는 단지 국가 지도자로서 고등교육개혁의 필요성과 대학교육 수준의 향상을 언급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후 1998년 5월 4일 베이징대학 연설(985공정 기조연설)을 즈음해서야 WTO 시대를 고려한 고등교육개혁을 언급하였다(江澤民 1998).

당연히 교육은 경제사회발전에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으며, 현대화 건설을 위해 각 분야의 인재들을 지지해 주고 지식을 제공해 줍니다. 이는 21세기 교육개혁과 발전방향입니다. 모두가 지속적으로 사상을 해방시키고 개혁을 심화시켜, 현대화, 세계화 및 미래를 향해 교육과 연구전선의 인재배양과 신지식 창조의 역동적인 새 국면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 연설은 위엔꾸이런이 인용한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세계 선진수준의 일류대학이 필요합니다.”라는 연설의 바로 앞부분이다. 이는 교육개혁을 통한 경제발전과 인재양성을 언급했다는 점과 WTO를 논할 때 자주 사용되는 사상해방, 개혁심화, 현대화 등의 용어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WTO 가입을 본격적으로 고려했음을 나타내 준다. 특히 현대화를 언급하면서 WTO 시대의 당위성 및 교육과의 연관성을 강조했는데, 이는 WTO 가입 이후 고등교육개혁을 고려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WTO 가입의 원년인 2001년에 이르러 세계일류대학계획은 더욱 구체화되었다. 이 시기 중국교육부 내부의 주요 사업계획으로 주목받게 되었으며, 특히 WTO 가입에 따른 교육경쟁력과 대외개방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장쩌민의 베이징대 연설 때부터 지금까지 중국 교육계는 활발한 논의를 통해 교육경쟁력과 대외개방의 문제를 극복하려고 노력했다. 중국교육학회장 꾸밍위엔(顧明遠)은 필자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 두 문제에 대한 초기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했음을 나타내었다. 이 의견들을 정리하면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하는 부류로 8,90년대에 유학을 다녀오거나 현 정권의 개혁개방정책에 협조하는 학자들이다. 둘째는 부정적으로 보고 시기상조론을 펼치는 부류로 사회주의의 특수성을 유

지하려는 보수적인 학자들이다. 셋째는 다소 부정적이지만 어쩔 수 없는 세계적인 추세라고 보고, 서구와 중국의 현실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현실론자들이다. 이처럼 다양한 부류의 의견을 접하는 과정에서 중국교육부는 빈번하게 논쟁의 도마 위에 올랐다. 그러나 선불리 WTO 가입에 따른 교육경쟁력과 대외개방문제에 대한 입장을 나타내지 않았다. 오히려 장점과 단점 모두를 인정하는 가운데 향후 고등교육개혁의 성과와 명운을 세계일류대학계획에 집중시켰다. 이는 전 교육부차관 쑤어위엔칭(中國教育報 01/02/16:1)의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다.

중국의 WTO 가입 이후 ... 세계화된 경제는 우리나라 고등교육에 이익과 폐단을 줄 수도 있고, 직접적인 영향과 간접적인 영향도 줄 수 있으며, 어려움과 기회도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를 대비한 신중함과 조기연구의 진행 및 개혁에 필요한 보다 빠른 조치가 요구된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은 확정적인 판단을 보류하며 신중한 자세를 취하였다. 이는 향후 진행될 고등교육개혁, 특히 세계일류대학계획을 통해 WTO 시대를 대비해야 함을 주장한 것이다. 중국교육부의 이러한 모습은 입장이 분분하던 교육계의 관심을 유도하여 세계일류대학계획의 성공을 위한 역량을 결집시키게 하였다.³⁾

2. 일류대학의 논의

‘일류대학’이라는 용어는 참으로 모호하다. 어느 정도의 수준을 일류대학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수준을 누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것인가? 이러한 모호함은 중국 내의 일류대학 논쟁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왜냐하면 중국의 1천여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분석과 구분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베이징대학이나 칭화대학처럼 사회 전반적으로 공감하는 일류대학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겠지만, 지역성이나 민족성 때문에 인지도는 높지 않지만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는 대학의 경우나 국가중점기지(國家重點基地)⁴⁾로 1,2개 학과가 선정되었지만 다른 학과의 교육환경이 열악하여 일류대학이라고 할 수 없는 학교의 경우 그 수준을 논하기 어렵다. 일류대학을 구분하기 어려운 데에는 다음과 같은 배경이 있다.

- 3) 2001년 이전에는 학자들 간의 의견이 서로 달랐으나 교육부의 신중한 대비책이 권고된 이후, 발표된 논저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顧明遠(2000:95-96), 熊思遠(2000:109-110), 張向晨(2000:44-47) 등은 중국의 WTO 가입에 대해 다소 의견 차이가 있었으나 袁振國(2003:112)과 吳松 외(2002:217-222)에서는 전반적으로 비슷한 입장을 보였다.
- 4) 2001년 중국교육부가 고등교육의 개혁방안으로 211공정의 연장선상에서 지정한 국가를 대표하는 중점 대학과 학과를 일컫는다. 예를 들어 국가를 대표하는 중점대학으로는 베이징대, 칭화대, 푸단대 등이 선정되었고, 전공으로는 철학에 베이징대 철학과(哲學係), 전자공학에 칭화대 전자계(電子係), 교육학에 베이징사대 교육계(教育係) 등이 선정되었다.

첫째 중국은 빈부격차가 크고 문맹률이 높으며 고등교육의 희소성이 폭넓게 인정되고 있다. 이는 대도시의 중산층의 자녀는 대학에 입학하기 쉽고 농촌출신은 그렇지 못하다는 지역적, 계층적 한계를 의미한다. 기초교육도 받지 못해 대학진학 자체가 선망의 대상이 되는 서부 및 중부 내륙지방에서 볼 때 일류대학 논쟁은 현실과 먼 얘기일 것이다.

둘째 구소련의 영향으로 도입한 대학체계를 다시 번복하기 어려우며, 대학평가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중국은 과거 소련의 대학교육체계를 받아들여, 각 시와 성(省)마다 대표하는 종합대학을 세우고 세부적인 인재배양을 위해 단과대학을 개설했다. 예를 들어, 베이징시의 베이징대, 상하이시의 푸단대, 헤이룽강성(黑龍江省)의 헤이룽강대학(黑龍江大學)은 각 시와 성을 대표하는 종합대학이며, 각 지역에는 모두 사범대학, 의과대학, 공업대학, 농업대학, 외국어대학 등이 공존한다. 그러나 불균형할지라도 빠른 성장을 추구한 과거정책의 부작용으로 인해 각 지역간의 불균형은 심화되어 있다. 즉 각 시와 성에 사범대학이 있지만 열악한 지역의 사범대학은 베이징사범대학과 비교할 수 없는 실정이다. 즉, 지난 반세기동안 지역간의 불균형을 감수하면서 발전중심의 교육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대학 간의 서열화가 문제시되고 있는데, 향후 일류대학을 구분하면 이러한 문제가 더욱 심화된다는 것이다. 결국 대학평가를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실시한 과거의 발전중심의 정책을 심화하려면 극복해야 할 반대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셋째 일류대학의 구분은 대학의 흥망을 결정짓는 핵심이다. 아직 명확하진 않지만, 일류대학의 기준을 마련하여 그 기준에 적합한 대학을 선출한다면 근소한 차이로 선출된 학교와 선출되지 못한 학교 사이에 막대한 격차가 생길 수 있다. 선출된 학교는 막대한 지원과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대학은 상대적 박탈감을 넘어선 존재의 위기에 빠질 수도 있다. 결국 일류대학을 선정하면 일류대학만 남게 되기 때문에 그 일류대학은 더 이상 일류대학이 아니라는 비약도 가능하게 된다. 그리고 일류대학을 선정하는 기준을 마련할 때, 과연 지역성과 민족성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교육부는 일류대학의 관료적인 구분보다는 공감할만한 조건을 제시하면서 보다 자연스러운 개혁과 경쟁, 이해와 합병을 기대하고 있다.

Ⅲ. 세계일류대학계획의 성립조건

개혁개방정책 이전의 중국은 지식인에 비해서 노동자나 농민을 우대했던 것이 사실이다. 물론 등소평의 개혁개방정책과 '지식인도 노동계급의 일부분'이라는 선언 이후, 점차 사회적

인식이 바뀌었지만 아직도 지식인에 대한 대우가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시기에 세계일류대학의 조건을 공포한다는 것은, 세계적인 강대국인데도 불구하고 교육적으로는 그리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중국의 포괄적인 고등교육개혁의 지표(中國教育部 2001:第1章 總則 第2項)라고 할 수 있다. 즉 과거 지식인에 대한 편향된 인식을 개선시키고 엘리트를 우대하여, 국제사회에서 중국교육의 자존심을 되찾고자 세계일류대학의 4가지 성립조건(袁貴仁 2002b)을 공식화한 것이다.

1. 일류교수(一流的教師)

‘교육의 수준은 교사의 수준’이라는 말은 중국에서도 통용되는 말이다. 그래서 중국교육부는 세계적 시각에서 평가를 해도 손색이 없는 일류교수를 양성하고 확보하는 것이 세계적인 대학의 우선되는 조건이라고 공포하였다. 이를 위해 중국교육부는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다.

먼저, 각 대학마다 교수평가위원회를 두고 지속적으로 강도 높은 평가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특히 박사학위와 박사후(博士後), 연구실적과 경력 등은 승진 및 조기퇴직의 명확한 사유가 되었다(유경희 2004:59). 이처럼 더 이상 안정적이지 않다는 인식 속에서 교수가 되기 원하는 대학원생과 현직 교수들은 가시적인 연구실적에 집중하고 있다. 물론 교수평가에 대한 부작용과 문제점이 적지 않으나, 과거 공산당에 가입한 후 커다란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정년이 보장되던 시기를 고려한다면 새로운 교육정책에 빠르게 적응하고 있는 셈이다. 중국교육부가 교수평가위원회를 통해 가시적인 교수평가에 성공한 데에는 연구업적이 우수한 교수와 대학원생들에게 파격적인 대우를 제시했기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세계적인 학술지와 국내 우수한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편수에 따라 같은 학교에도 1백만위안(약 1억 5천만원) 이상의 연봉을 차등지급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⁵⁾ 이는 과거 ‘가난한 선생(貧窮的教師)’이라는 인식과 달리 교수도 부유층이 될 수 있다는 희망과 더불어 실제적인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호응을 얻기에 충분하다. 물론 교수들 간의 빈부격차와 지나친 연구중심의 학풍 등이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세계일류대학계획을 위한 일류교수를 선발하는데 기준을 마련했다는 의의가 있다.

둘째로 국가차원에서 노벨상 수상자를 비롯한 세계적인 석학을 초빙해 교육 및 연구의 질을

5) 필자가 박사과정에 재학하던 2000년에 베이징사범대학은 연구중심의 대학으로 발전하기 위해 모든 교수들과 대학원생들에게 최근 3년간 발표한 논문편수와 발표학술지의 인지도를 고려해 발표논문 1편당 3백위안에서 2천위안까지(약 5만원에서 30만원) 일괄 지급하였다. 당시 전임강사 초봉이 1천 위안(약 15만원) 정도였음을 감안할 때 상당히 파격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개선하고 있다. 이는 중국 내의 교육환경과 시스템의 한계를 인식하고 외부로부터 선진적인 연구풍토, 연구내용, 연구방법 및 시스템을 수혈받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한 중국교육부와 각 대학의 투자는 상당히 과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언론에 알려진 대로 칭화대학은 골드만삭스 미국 본사 사장인 소튼(J. Thornton)을 금융연구센터 석좌교수로 초빙해 큰 화제를 모았으며, 미국 금융전문가 살벤디(G. Salvendy)도 특급대우로 초빙했다. 이들의 실질 연봉 및 연구비는 수 십 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조선일보 04/10/06:인터넷판).

이러한 과감한 투자와 섭외로 일류교수 확보와 일류교수로의 유도가 성과로 나타났다. 즉 세계적인 석학들의 연구내용과 강의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으며 세계적인 권위자의 명성이 주는 과급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국내과 교수들의 불만과 위화감이 문제로 나타났지만, '세계적, 국제적, 현대적(管培俊 2003)'이라는 구호와 함께 극복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폐쇄성이 짙었던 중국이 해외에서 초빙된 석학들로부터 얼마나 효과적으로 성과와 업적을 흡수할 수 있는가와 계약제로 초빙된 그들의 업적을 국제적으로 어떻게 공인받을 것인가가 과제로 남겨져 있다.

2. 일류학과(一流的學科)

일류대학에는 반드시 일류학과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세계일류대학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중국교육부는 우선적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가질 수 있는 일류학과를 선정하고 성장시킬 계획이다(吳松 외 2002:256). 세계일류대학계획을 위한 일류학과에 대한 인식은 WTO 가입이후 교육개방의 위기 속에 교육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역사적 전통이 확고한 일류학과를 발굴하고 양성하는 것으로, 중국만이 최고일 수 있는 학과와 과거 역사적으로 주목받았던 학과를 일류학과로 선정하여 집중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어 중문과의 경우 중국이 세계적인 수밖에 없고, 중국에서 공부하는 외국 유학생의 대다수는 사실상 중국어를 배우고 있으므로 중문과를 세계적인 일류학과로 발전시켜 세계일류대학계획에 다가서자는 것이다.

둘째, 시대적 요구와 사회공헌도가 높은 학과를 일류학과로 집중 양성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전자공학과나 유전공학과 같은 경우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주요한 학과임과 동시에 사회적 공헌도가 높은 학과이기 때문에 세계적인 수준으로 향상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칭화대학과 스탠포드 대학의 컴퓨터학과 교류 프로그램의 예와 같이, 세계 명문대학과 교류협정을 맺어 학과간의 네트워크를 견고히 하고 있다.

셋째, 학과간의 구분과 폐쇄성을 지양하고 통폐합과 공동연구체제를 장려할 계획이다(이남

주 2002:262). 지금까지 중국의 대학은 대학과 대학, 단과대학과 단과대학, 학과와 학과 사이에 확고한 개별성이 존재해 있었다. 그러나 중국교육부는 일류학과의 양성을 위해 세계적인 대학의 사례를 연구하면서, 공동연구를 중심으로 학과간의 경계가 사라지고 있는 추세임을 감지하게 되었다. 그래서 중의학(中醫學)과 서양의학, 동양학과 생명과학, 환경학과 체육학 등의 공동연구를 통해서 획기적이고 특색 있는 일류학과로 도약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넷째, 일류학과의 선정을 통한 주변 학과의 동반성장을 계획하고 있다. 한 대학의 모든 학과가 일류학과가 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한 개의 일류학과가 활성화되면 이로 인한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교육학과가 일류학과로 선정이 되면 심리학과, 사회학과, 아동학과 등도 견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 4가지 계획을 통해 일류학과를 선정하고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면 학과간의 불균형과 경쟁력 없는 학과의 존재위기 등의 한계도 나타날 수 있다. 다만, 최소한의 학과라도 세계적인 일류학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과 그 일류학과를 통한 해당대학의 동반상승효과는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3. 일류관념(一流的觀念)

중국은 실천에 앞서 사상, 정신, 이념, 관념 등으로 표현되는 이데올로기를 우선적으로 강조해 왔다. 그래서 국가정책이 공개되기 전이나 공개될 때, '~ 사상'이나 '~ 정신' 등을 먼저 발표하곤 한다. 세계일류대학계획도 예외는 아니다. 일류대학에 이르기 위한 정신적인 개조와 개혁마인드를 중시했는데, 이를 일류대학에 적합한 '일류관념'이라고 한다. 이 일류관념은 사실상 중국교육부의 방침을 원만히 실행하기 위한 원칙적인 성격이 강하다(袁貴仁 2002b).

첫째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에 합당한 온고지신의 원칙이다. 이는 중국의 지도층이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사회주의 통치체제와 WTO 가입에 따른 시장경제로의 지향성을 모두 인정하려는 자세이다. 물론 이러한 자세는 애매한 부분도 없지 않다. 대학의 시장성을 인정하지만, 전통적인 사회주의 이념을 거스르지 않아야 한다는 점과 사회주의 이념은 고수하되 개혁방안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국제적인 시각에서 이러한 양면성을 일류관념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중국교육부가 현실성을 고려하여 선택한 두 마리의 토끼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둘째는 경쟁과 승복의 원칙이다. 이는 자유로운 경쟁을 두려워하지 않고, 개혁 과정과 결과에 승복해야 함을 의미한다. 일류대학은 첨예화된 경쟁을 통해 두각을 나타낸다. 또한 통폐합 등의 과감한 개혁과 결과에 대한 승복이 전제되지 않으면 영원히 중국은 집중 육성할

일류대학을 선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을 인식한 각 대학은 WTO 가입이 후 더욱 성장할 수 있는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로 구분되고 있다. 예를 들어, 하얼빈공대(哈爾濱工大)의 경우 경쟁력을 갖추기 시작한 약 10년 전부터 교수연구업적, 교수-학생 비율, 학교시설 등을 평가한 결과 전국 10위권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또한 쑤저대학(浙江大學)은 기존의 4개 학교(浙江大學, 浙江農業大學, 杭州大學, 浙江醫科大學)를 합병하여 전국 5위권의 대학으로 급성장하였다(中國教育報 04/05/30:1). 그러나 각 지역의 외국어대학과 중의학대학 중에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대학들은 점차 흡수합병 되거나 존폐의 위기에 있기도 하다. 그러므로 과거의 명성이나 인지도를 포기, 극복하고 공정한 경쟁에 따른 결과를 승복하는 가운데 자연스러운 일류관념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셋째는 국제화, 세계화의 원칙이다. 중국 내의 일류대학을 세계적인 일류대학으로 성장시키는데 세계일류대학계획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중국교육부는 국제적, 세계적 관념(시각)이 절실하다고 보았다. 특히 과거, 지나치게 전통적이거나 국수적인 부분을 과감하게 개혁하고 선진국의 합리적인 학교운영제도와 연구시스템을 수용하는데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외국어와 컴퓨터 교육을 강화하여 국제적, 세계적 소양을 갖추 수 있도록 노력하는 가운데 일류관념은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4. 일류제도(一流的制度)

중국에서 '제도'라는 단어는 상당히 광범위하게 쓰인다. 특히 대학의 제도적인 개혁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학사행정, 학교운영, 조직 등을 범위로 한다. 중국의 대학행정 및 운영은 매우 낙후해 있다. 아직도 전산화가 되지 않은 유명대학도 있고 행정직원의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 처리되는 학사도 없지 않다. 이러한 점들은 세계일류대학계획에 큰 장애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중국교육부는 다음 두 가지를 중심으로 세계수준의 대학제도로 향상시키려 하고 있다(袁貴仁 2002a).

첫째는 학사행정의 전산화이다. 중국 일류대학의 컴퓨터 보급률은 세계적이다. 모든 연구실과 사무실에 컴퓨터가 보급되어 있다. 물론 211공정에 의한 학교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한 조치였을지라도 중국의 일류대학의 컴퓨터 보급률은 선진국과 다를 바 없다. 그러나 컴퓨터를 활용하는 부분, 특히 학사행정의 전산화는 매우 취약하다. 인터넷 LAN선에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가 적으며, 교직원들의 활용능력도 미흡한 실정이다. 그래서 컴퓨터가 일괄적으로 보급된 이후에도 수강신청과 성적입력을 수기로 하는 학교가 적지 않았다. 이는 전산화 시스템이 아직 구축되지 못했고, 실무자들의 인식부족에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실정

에 대해 중국교육부는 홈페이지, 학사행정, 전산 시스템, 인터넷 보급 및 속도 등을 대학평가의 요소에 포함시킬 계획이다(中國教育部 教育管理信息中心 2004).

둘째는 조직체계의 개편이다. 중국의 대학조직은 매우 독특하다. 예를 들면, 모든 행정기관 및 학과에는 최고책임자와 더불어 관리감독자인 당서기(黨書記)라는 직위가 있으며, 교수와 교직원의 구분도 매우 모호하다. 일부학교에서는 당서기의 입김이 총장보다 세기도 하며, 교직원이 교수를 일방적으로 통제하기도 한다. 또한 당원과 비당원간의 갈등도 조직체계의 한계를 나타내곤 한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조직체계가 자유로운 연구와 공정한 경쟁 및 평가를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중국교육부는 세계적인 대학의 조직체계를 연구해 중국 내의 조직체계를 개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中國教育部 人事司組織 2002). 물론 이 과정에서 인력에 대한 구조조정 및 학교구성원 간의 갈등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날 수 있으나, 임무와 책임이 명확하지 않고 방만한 조직체계의 개편은 세계일류대학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인식시키고 있다.

IV. 3대원칙 및 실행단계

1. 교육개방과 3대원칙

WTO 가입은 중국의 의도와 상관없이 교육개방을 전제하고 있다. 사실 교육개방에 따른 중국의 입장은 사뭇 보수적이었다. 서구의 교육자본과 우수한 시스템이 들어와 중국의 그것을 무기력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시각은 정치적인 우려도 포함된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 건국이후 중국정부는 교육을 관리, 통제함으로써 정치적 위기와 사회적 갈등에 봉착했을 때 직접적으로 활용해 왔다. 그러나 교육개방은 이러한 기존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전환시키기에 충분하다. 특히 천안문사태 등을 경험한 중국정부에게 고등교육의 개방은 초, 중등교육에 비해서 민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WTO 시대의 교육개방이라는 피할 수 없는 숙명과 고등교육개혁(특히 세계일류대학계획) 사이의 '통제 가능한 조화'를 위해 중국교육부는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姜德波 2003:50). 교육개방에 따른 3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다(中國教育部 2004:總則).

1) 국가 고등교육의 주권 원칙(國家高等教育主權原則)

중국은 교육개방에 따른 최대 위기를 국가주도형 공교육의 안전문제로 보고 있다. WTO

가입과 교육개방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모든 국가에게 교육의 주권 문제는 핵심이 아닐 수 없으나 중국은 특히 민감한 편이다. 그 이유는 고등교육을 정치적으로 관리, 통제하고 공교육 중심으로 육성시켜 국가통치의 주요 수단으로 여겨왔기 때문이다(蔡克勇 1997:8). 그러나 WTO 체제의 교육개방은 새롭고 다양한 교육기관과 체제의 도전이 불가피하다. 즉 기존의 국가주도형 공교육과 이를 이끌었던 중국교육부에게 위기감을 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위기감을 고려하여 원론적인 교육주권의 문제를 첫 번째 원칙으로 삼은 것은 중국교육부의 입장에서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2) 상대적 교육이익의 원칙(相對教育利益原則)

교육은 생산수단은 아니다. 그러나 경제를 토대로 본 사회구성체론을 견지해 왔던 중국이 교육적 '이익'을 따지는 것은 특이한 것만은 아니다. 이는 교육개방에 따라서 국가 간의 득실이 분명히 존재함을 나타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번째 원칙에서 '상대적'이라는 말은 비교를 전제한 것으로, 사실은 교육개방에 따른 중국의 고등교육을 보호하고자 언급한 것이다. 즉 교육의 이익이 상대적이라는 원칙은 해외에서 검증받은 교육기관이나 체제일 지라도 중국 내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면 거부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를 소극적으로 해석하면 중국과 상대국 모두의 교육적 이익을 지향한다는 뜻이라고 할 수 있으나 사실은 득보다 실이 크다고 판단되면 언제라도 개방의 폭을 좁힐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3) 구체적인 고등교육문제는 구체적 분석의 원칙(具體高等教育問題具體分析原則)

구체적인 교육문제는 곧 모든 문제의 개별성을 나타낸다. 세 번째 원칙 역시 중국교육부의 성격을 짐작할 수 있는 것으로, 각각의 문제에 대해 유동적인 방침이나 법률을 적용해, 판단의 주도권을 자신들이 소유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명확한 방침이나 법률을 근거하기 보다는 중국의 시기적, 사안적인 배경을 고려해 타국과의 교육문제에 접근하겠다는 것은 교육개방으로 인한 위기감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 세 가지 원칙에서 중국교육부는 '통제 가능한 조화'를 공식화하려 한 것 같다. 사실상 WTO 가입에 따른 필연적 교육개방의 시기에서, 세계일류대학으로 성장은 하고 싶지만 정치적 기득권은 버릴 수 없고, 타국의 우수한 점은 받아들이고 싶지만 자국의 공교육은 보호하고 싶은 중국교육부의 고민이 담겨져 있다. '통제 가능한 조화'를 바라볼 때, 향후 개방의 시대에 놓인 중국이 더 이상 '통제'에 역점을 둘 수 없다면, 합리적으로 '조화'해 나갈 수 있는 유연한 자세가 요청된다.

2. 실행단계

세계일류대학계획의 목적은 중장기적으로 중국 내 대학을 국제적으로 공인받을 수 있는 세계적인 대학으로 육성시키는 것이다. 물론 명확한 시기와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가급적 짧은 시간에 많은 대학을 세계적인 대학으로 성장시키려는 것은 당연하다.

세계일류대학계획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중국교육부는 WTO 가입에 따른 정치적, 경제적 영향을 감안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세계일류대학계획은 계획 초기와 달리 WTO 가입에 따른 점차적인 실행단계가 교육령으로 공포되었다. 이 교육령은 중국교육부의 요청에 따라 상하이교통대학(上海交通大學)이 조사, 연구한 것으로, 각 단계별 기간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기초단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中國教育報 02/03/12:4). 아마도 장쩌민의 집권 시기에 집중 논의되었던 계획에 대해 새로운 정부가 어느 정도를 비판하고 계승할지 고민하고 있는 것 같다. 다만, 211, 985공정 때부터 예견된 계획이고, 고등교육 개혁을 위해 반드시 실행해야 하기 때문에 명확한 시기는 공포하고 있지 않으나 실행될 것은 확실하다.⁶⁾

제1단계: 세계적인 대학의 유형과 조건, 내용과 조직 등을 연구, 분석하여 세계일류대학의 명확한 기준과 성격을 설정한다. 중국은 이 단계에서 세계적인 대학에 대한 연구를 자국의 우수 연구기관에 의뢰하였다. 특히 211공정에서 우수연구기지로 선정된 베이징사범대학과 비교교육학회를 통해 G7 국가를 대표하는 대학의 역사, 행정, 제도, 환경, 구성원, 커리큘럼 등을 조사연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국교육부는 각 대학 관리에 있어 2가지 참고할 점을 제시함으로써 우수대학의 판단 기준을 공식화 하였다(中國教育部通知 2004).

- (1) 기본 부분: 교사-학생 비율, 전임교수와 대학원 학위수여 자격자 비율, 연구실과 강의실 규모, 교육기자재 및 시설, 중앙도서관의 장서.
- (2) 심화 부분: 국가가 공인한 석학(전문가) 확보, 학교의 면적 및 환경, 행정 전산화와 컴퓨터 보급률, 멀티미디어 강의실 및 LAB실 수, 최근 3년간 장서 증가율.

6) 후진타오 정부는 정권교체기를 감안하여 장쩌민의 주요 교육사업에 대해 어느 정도 경계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 대표적인 예로, 장쩌민이 베이징의 모든 대학을 단계적으로 시 외곽 랑팡시(朗坊市)에 모두 이전 시키고자한 “동방대학성계획(東方大學城計劃)”을 후진타오 정부는 입각과 동시에 중지(보류)시켰다. 물론 대학과 교육계의 비판이 많았던 계획이었으나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었고 이미 몇몇 대학의 분교가 이전한 상태인데, 중지시킨 것은 후진타오 정부의 자세를 나타낸 준다.

7) 실체가 공개되지 않아 윤곽이 모호한 세계일류대학계획이지만, 이미 실행되고 있으며 실행될 것이라는 근거는 2004년 8월 16일, 北京의 주요 4개 대학(베이징대, 칭화대, 런민대, 베이징사대) 총장들의 좌담회에서 알 수 있다. 이 좌담회에서 각 대학 총장들은 세계일류대학계획에 따른 각 대학의 준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으며, 국가적인 차원의 바람직한 세계적인 대학의 육성 방안을 논의하였다.

(<http://www.moe.edu.cn/edoas/website18/level3.jsp?tablename=523&infolid=4412> 참조).

이 두 가지 참고할 점은 2002-2004년 동안 연구한 세계적인 대학의 조건과 그 내용을 참고하여 제시한 공식화된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누구나 공감하는 일반적인 대학평가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으나, 우수대학에 선정될 가능성이 있는 대학들은 단순한 대학평가의 기준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으며 세계일류대학계획과 연관지어 받아들이고 있다. 이로 인해 세계일류대학계획으로 집중관리 될 대학과 관리를 희망하는 대학들은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평가기준에서 벗어나 구체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 파악하게 되었다.

제2단계: 세계적인 대학의 기준과 성격 등을 고려해 중국 내 일류대학을 선정한다. 중국 내 일류대학을 선정하고 세계적인 대학으로 집중 지원하겠다는 두 번째 단계는 가장 민감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일단 첫 번째 단계에서 일류대학의 선정 기준을 확정했다고 해도 평가과정에서 객관성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1천개에 달하는 고등교육기관 중에 근소한 차이의 평가를 받은 대학들 중, 과연 몇 개의 대학을 선정할 것인지도 맹점이다. 이러한 현실적인 고민에 대해 교육부와 각 지방의 담당 공무원 및 각 대학의 총, 학장들은 지속적인 의견을 나누고 있다. 이 중 난카이대학(南開大學) 부총장인 천용촨(陳永川)의 '이공계 육성을 위한 국제회의'에서의 연설은 주목할 만하다(중앙일보 2004/06/01:10).

2025년까지 세계 100위권 대학에 2곳이 들어갑니다. 이공계 노벨상 수상자 배출은 물론입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인기가 없는 대학과 학과는 사라지고 각 지역에 흩어져 있던 단과대학들도 종합대학으로 합쳐집니다. 그러나 가장 큰 우려 중 하나는 정부 후원을 받지 못하는 대학이 대부분이라는 점입니다.

위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교육부가 세계일류대학계획을 통해 1차적으로 집중 지원할 대학은 2개 학교, 즉 베이징대와 칭화대 정도로 윤곽이 들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대학, 학과 간의 통폐합과 지원을 받지 못할 대학들이 대부분이 될 것이라는 언급은 시장경제체계에 합당한 대학의 체질개선이 시급함을 의미한다. 결국 세계일류대학계획에서 소외된 학교들은 학생 수업료 인상과 산학협동 등을 통해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국가지원 및 보조에 대체해야 하며, 나아가서 경쟁력 없는 대학과 학과는 사라지거나 흡수합병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http://www.moe.edu.cn/highedu/gxtz/gxhb_20030417.xls 참조). 물론 베이징대와 칭화대 외의 학교도 전공별로 세계적인 대학으로 성장 가능하다. 왜냐하면 중국의 1천여 대학 중에 상위 1%의 대학들은 발전가능성과 그 격차가 매우 근소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국교육부는 비교적 폭넓게 중국 내 일류대학을 발표하였다. 다음은 2003년 중국교육부가 조사, 발표한 15개 일류대학을 정리하여 도표화한 것이다.

<표 1> 2003년 중국의 대학 순위표

순위	대학, 대학원 입학시험 순위	교육부 전공별 평가	
		평가대학	대표 전공
1	清華大學	清華大學	공학 1위
2	北京大學	北京大學	법학, 문학, 이학 1위, 의학 2위
3	人民大學	中國農業大學	농학 1위
4	復旦大學	武漢大學	철학 1위
5	上海交通大學	中國醫科大學	의학 1위
6	北京航空航天大學	北京師範大學	교육학 1위
7	天津大學	人民大學	경제학 1위, 신문방송학 2위
8	南京大學	西安交通大學	관리학 1위, 공학 6위
9	中國醫科大學	南京大學	역사학 1위, 이학 2위
10	南開大學	浙江大學	농학 2위, 공학 3위
11	中國科學技術大學	上海交通大學	공학 2위
12	西安交通大學	華中科學技術大學	공학 5위
13	大懸理工大學	哈爾濱工業大學	공학 4위
14	中山大學	復旦大學	의학 3위
15	華中科學技術大學, 哈爾濱工業大學	中國科學技術大學	이학 3위

출처: 중국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edu.cn/highedu/news>).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15개 대학은 중국 내 일류대학은 물론 세계일류대학계획에 선정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몇 개 대학을 선정할지 그 범위와 전공별 평가방식은 미정이다. 아마도 SCI, SSCI 등 국제학술지의 등재, 첨단 과학기술분야의 필요성, 칭화대학 출신의 고위 공직자의 우세 등을 미루어본다면 이공계중심의 대학이 유리할 전망이다.

제3단계: 선진국과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선정된 중국의 일류대학을 집중적으로 발전시킨다. 중국 내 일류대학의 수준을 평가하기란 쉽지 않다. 이공계와 같은 경우는 가시적인 평가가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겠지만, 인문학분야의 평가는 상대적으로 명확하지 않다. 특히 사회주의의 특수성을 주장해온 중국은 학술적 폐쇄성을 견지해 왔기 때문에 국제사회와 다른 독자적인 학풍과 연구내용을 지니고 있다. 세계일류대학계획은 사실상 이러한 중국 내의 독자적인 학풍과 연구내용을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 보편적이고 가시적인 평가를 수용하겠다는 의미이다. 즉 자국 내의 일류대학을 세계적 기준에도 손색이 없는 대학으로 성장시켜 그동안 평가하기 어려웠던 중국의 독자적인 학풍과 연구내용이 세계적이었음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다.

선정된 중국 내 일류대학을 집중 발전시킨다는 것은 두 가지 전제가 함축되어 있다. 첫째는 선진국과의 차이와 중국의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선진국의 일류대학은 국가

경쟁력과 경제발전이 대학의 성장과 동시에 이루어졌으나 중국의 현실은 다르다. 국제사회에서 힘을 가지고는 있으나 경제 선진국이 되기는 요원한 가운데 대학만을, 그것도 소수의 대학만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시키겠다는 계획은 매우 특이하다. 이러한 계획은 짧은 시간에 경제적으로 고속성장을 해온 중국이 짧은 시간에 소수의 대학을 고속성장 시키고자 한다는 점에서 일맥상통한다. 결국 중국식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에 대한 특수성과 정부의 통제 가능한 대학의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세계일류대학계획은 서구 추종주의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온고지신의 지혜가 요구된다.

둘째는 소수의 몇 개 대학에 국가차원의 막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것이다. 아직 정확한 대학별 사업계획과 이에 따른 지원예산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그 규모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라는 것은 누구나 예측할 수 있다.⁸⁾ 중요한 것은 막대한 예산확보도 어렵지 않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교육을 중심으로 각 대학에 의무적으로 지원했던 고등교육예산을 WTO 체제에서는 경쟁력이 부족한 대학에게 지원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즉 WTO 체제로 인한 잉여예산을 소수의 몇 개 대학에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매우 현실적인 계획이며, 과거 국가의존도가 높았던 대학의 체질을 개선하는 데에도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제4단계: 211, 985공정을 심화시켜 선정된 중국 내 일류대학(약 15개 대학)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경제적 지원(대학발전기금, 연구비, 시설비, 인건비 등)을 아끼지 않는다. 세계일류대학계획은 자칫 국책사업이 아닌 소수의 몇 개 대학만을 위한 계획이라고 비판받을 수 있다. 이러한 비판을 극복하려면 무엇보다 선정된 대학이 선정되지 않은 대학을 견인해 나갈 수 있어야 하며, 선정되지 않은 대학 역시 선정되지 않은 이유를 검토하여 세계적인 대학과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 내에서는 일류대학으로 손꼽히지만, 세계일류대학에 선정되지 못한다면 선정된 대학에 비해서 성장과 발전 속도가 늦을 것은 당연하다.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국가로부터 지급될 예산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제4단계에서 중국교육부는 211공정을 통해 선정된 학교 중에 약 15개 대학을 특별 관리하여, 세계일류대학계획에 선정된 학교와의 격차를 최소화시킬 계획이다(中國教育部 高等教育司 2000). 또한 차기에 세계적인 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면서도 지나친 경쟁으로 인한 문제점을 감소시키기 위해 15개 대학에 대한 지원규모도 상당할 것이다. 물론 근소한 차이로 15개 대학에 선정되지 않은 학교들에 대한 문제가 다시 제기될 수 있으나 과거 국가주도형 대학운영방식을 상기한다면 15개 학교정도에서 제4단계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⁹⁾

8) 중국교육학회장 꾸밍위엔(顧明遠)은 필자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의 토오쿄대학을 단계적 지원예산의 모델로 삼고 있다고 했음.

9) 중국교육부 고등교육평가처(高等教育評估處)의 류펑타이(劉鳳泰) 담당관은 필자와의 인터뷰에서 “예산지원

제5단계: 선정된 대학의 자율성과 자치권을 인정하고 자발적인 대학개혁을 지원한다. 세계일류대학계획은 중국의 일류대학중에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대학을 선정, 지원, 관리하는 국책사업이다. 이 과정에서 중국교육부는 “중화인민공화국 해외합작학교 설립조례 실시조치(中華人民共和國中外合作辦學條例實施辦法)”의 취지에서처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대학이 스스로 책임 있는 개혁과 성장을 모색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즉 제5단계에서는 국가의 지원과 특혜에 의존하던 모습을 탈피하여 세계적인 대학으로써의 진정한 면모가 갖춰지길 바라는 것이다.

제5단계에서는 세계일류대학계획에 선정된 대학과 선정되지 않은 일류대학이 전공별로 경쟁하게 된다(吳林海 외 2003:40-41). 이 과정에서 4단계까지 중국교육부의 노력과 지원이 얼마나 성과가 있었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선정된 대학과 선정되지 않은 대학 사이에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세계일류대학계획은 결과적으로 실패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공계와 같은 경우는 경제적인 지원과 시설투자가 연구 성과에 직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지만, 인문학 분야는 개인의 노력에 따라 위대한 연구 성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선정된 대학과 선정되지 않은 대학사이의 경쟁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제5단계에서 각 대학의 자율, 자치권을 인정하고 대학개혁을 지원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첫째는 과거 국가차원의 관리와 정책적 획일성으로 인해 성장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고 대학 스스로가 자율적, 자치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직접적인 간섭은 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사실 이러한 교육부의 변화로 인해 2002학년도부터 각 대학은 학생 모집, 커리큘럼, 학교행정 및 관리 등에 있어서 상당히 자유로워 졌다(中國教育部令 2004:第五章 管理與監督). 둘째는 고등교육개혁의 사활이 걸린 세계일류대학계획에 대한 책임을 대학당국에 이임하겠다는 의미이다. 이는 선정되지 못한 대학들의 불만을 알면서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실시해 온 세계일류대학계획이 미흡한 결과를 거둔다면, 그 책임을 대학 스스로의 경쟁력과 개혁성 부족 등으로 미룰 수 있다는 의미이다.

제6단계: 선정된 대학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조연할 평가기관을 상설화 해 관리와 감독, 지원과 협조를 지속한다. 마지막 단계에서 세계일류대학계획은 두 가지로 성공여부를 평가 받게 된다. 첫째는 선정된 대학이 세계적인 대학으로 성장했는지, 둘째는 성장했다면 지속적으로 세계적인 대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사실 마지막 6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은 이미 세계적인 대학으로 성장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6단계는 성장한 대학들을 지속적으로 평가, 관리하는데 핵심이 있다.

합리적인 평가와 관리를 위해 중국은 교육부에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상설기관을 설

의 차등은 있을 수 있지만 15개 대학을 초과하여 선정할 수는 없다”고 했음.

치할 예정이다.¹⁰⁾ 이 기관은 행정, 조직,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고 단과대 및 학과별 경쟁력을 수치로 평가(디지털화)하여 대학 스스로가 안주하지 않고 더욱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컨설팅'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특히 세계적인 대학으로 성장하기까지 지원된 예산의 내역을 공개할 것이며, 세계적인 대학과의 직접적인 비교를 통해 학교별, 전공별 우위를 평가할 예정이다. 또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1-5단계까지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공개하여 향후 세계적인 대학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대학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각 대학은 세계적인 대학으로의 성장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여,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기반으로 효과적인 성장을 계획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6단계는 세계적인 대학으로 성장한 학교를 지속적으로 평가, 관리하는 과정이자 동시에 아직 세계적인 대학으로 성장하지 못한 학교를 위한 예비단계라고 할 수 있다.

V. 향후전망 및 논의

세계일류대학계획은 중국이 고등교육개혁을 위해 총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국책사업이다. 추진타오 체제로의 전환과 지방정부, 소수민족, 대학간의 마찰 등을 고려해 아직까지 세계일류대학계획의 명확한 실체는 알 수 없지만, 현재 진행 중인 고등교육개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현 정권 이전에 추진된 211, 985공정과의 연계성 정도를 고민하면서 전면적인 공개는 꺼리고 있지만, WTO 가입을 즈음하여 계획했다는 점과 사회주의국가의 특성에 따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세계일류대학계획은 적극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세계일류대학계획은 아직 세부적인 내용과 일정이 불분명한 프로젝트다. 특히 총 6단계로 실행단계를 구분하였으나 현재 중국이 어느 단계에 속해 있는지, 언제까지 추진할 것인지조차 불분명한 것이 사실이다. 다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세계적인 대학을 자성시키고자하는 의지와 강대국으로써의 자존심이 과거 211공정처럼 '선추진후수정(先推進, 後修正)'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했다.

세계일류대학계획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세계정세와 자국의 현실을 인지한 중국

10) 이 기관에 대해 張劍杰(2003:190)은 '다차원-즉각적인 토론(多次及時討論)'을 통해 향후 합리적이고 지속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11) 211공정 역시 초기에는 그 실체가 불분명했으며 추진 시기와 방법도 뒤늦게 공개되었다. 세계일류대학계획도 211공정처럼 먼저 추진해 가면서 나중에 공개하고 수정하는 '선추진후수정' 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의 적극적인 대처와 일사불란한 추진방식은 귀감이 되기에 충분하다. 또한 WTO 시대에 국내외의 다각적인 의견과 갈등요소들을 비교적 합리적이면서도 당당하게 절충, 조화해갔다는 점에서 세계일류대학계획은 가능성이 엿보인다. 나아가서 국가경쟁력의 향상이 교육경쟁력으로 이어진다면 중국 내의 우수대학이 세계적인 대학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은 매우 당연하게 느껴진다. 세계일류대학계획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전망할 수 있다.

첫째, 90년대 중반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고등교육개혁의 성과를 세계일류대학계획과 연계할 수 있다. 특히 중국은 211공정으로 교육개혁의 내성과 대학 간의 경쟁력을 자각시켜왔기 때문에 세계일류대학계획도 비교적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선정되지 못한 대학과 학과의 불만, 선정방식의 객관성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이러한 문제는 211공정 시기에도 겪어왔기 때문에 무난히 극복할 전망이다.

둘째, 막대한 예산의 투입으로 성공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아직 정확한 예산은 공개되고 있지 않지만, 세계일류대학계획은 누구나 예측하듯이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최소한 선정된 대학이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 경쟁력을 갖추지 못할 염려는 없다. 이렇게 안정적인 물적 토대를 제공함으로써 정부는 국가차원의 강한 의지를 나타낼 수 있으며, 동시에 고등교육개혁 과정에서 교육부의 의견을 당당하게 피력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WTO 가입과 시장경제체제로의 추세가 타당성을 제공할 것이다. 중국의 대학들은 이미 무한경쟁체제를 인식하고 내성을 쌓고 있다. 과거, 자의든 타의든 추진해 온 대학 간의 통폐합과 구조조정의 과정에서 각 대학은 세계일류대학계획의 타당성을 받아들일 것이며, 향후 중국의 고등교육개혁의 추세로 인식하게 될 것이다. 즉 세계화, 국제화 시대로의 변화로 인해 세계일류대학계획은 그 타당성을 확보해 성공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은 세계일류대학계획의 성공가능성과 고등교육개혁 과정에서 중국교육부의 입지를 더욱 견고하게 해 줄 전망이다. 그러나 미완의 계획을 전망할 때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와 과도기적 사회분위기 등, 부정적인 측면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향후 세계일류대학계획을 전망할 때 부정적인 견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계적인 인프라가 없는 상태에서 세계적인 대학이 존재하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중국은 선진국과 같은 수준의 문화, 산업, 교육 등의 인프라를 갖추기 어려운 국가이다. 일반적으로 세계적인 대학은 종합적인 사회 인프라가 구축된 선진국에 국한되어 있다. 그러므로 세계일류대학계획은 세계적인 인프라가 미비한 상태에서 교육 분야만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겠다는 불균형성이 내재해 있다. 물론 몇 개의 전공이나 소규모의 연구소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시키는 것은 가능할 수 있겠으나 대학 전체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향상시키겠다는 것은 대학의 독자적 역량만으로는 불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국가차원의 정책과 예산지원이 저해요소로 작용될 수도 있다. 대학경영의 자율성과

학문의 자유는 21세기 세계적인 대학의 기본요건이자 추세이다. 그러나 세계일류대학계획은 각 대학의 자율적 운영과 학문의 자유를 표방하고 있지만, 국가주도형 고등교육개혁 정책의 성향이 강하다. 사실 국가가 정책과 지원방향, 선정기준 및 내용 등을 제시하고 각 대학들은 대부분 수동적으로 견인되었기 때문에 자율성과 자유를 담보하기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세계적인 대학이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학문, 사상, 문화, 체제 등의 한계를 극복하고 자율적으로 경쟁해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을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향후 중국정부가 각 대학에게 얼마나 실질적인 대학경영의 자율성과 학문의 자유를 보장할지 미지수이다. 특히 과거의 경험을 회고할 때 사상이나 체제와 같은 민감한 문제에 있어서 회의적인 것이 사실이다.

셋째, 소질교육(素質教育)¹²⁾과의 모순이 쟁점화 될 전망이다. 소질교육은 90년대 초, 세계일류대학계획에 앞서 시작된 중국교육개혁의 전반적인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다. 개혁개방과 더불어 중국에는 지나친 교육열과 입시, 경쟁위주의 교육 등으로 인해 교육본연의 의미를 잃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소질교육은 이러한 비판을 인정하고 향후 중국교육이 인성교육, 전인교육을 추구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추진되었다. 그러나 세계일류대학계획은 이러한 소질교육에 정면으로 상충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수험생들에게 중국 내 일류대학 중에서도 세계일류대학계획에 선정된 학교에 진학해야 한다는 동기부여와 경쟁위주의 교육관을 심어주기에 충분할 것이다. 아직 소질교육과 세계일류대학계획의 관계가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은 아니나, 향후 양자 간에 무엇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인지 쟁점화 될 것은 당연하다. 다만 소질교육이 전통성이나 명분 등으로 인해 보다 많은 전문가들의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세계일류대학계획에 차질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중국과 마찬가지로 한국은 WTO로부터 직, 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또한 세계적인 교육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국 내 세계적인 대학이 부재한 것도 공통적인 사실이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볼 때 중국의 세계일류대학계획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첫째, 국가차원의 과감한 투자와 추진력은 귀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세계일류대학계획은 실제적인 투자와 사회적 갈등을 잠식시킬 수 있는 리더십이 바탕이 되어 추진되고 있다. 특히 적극적이고 순발력 있는 대처는 중국교육부의 내실 있는 활동과 위기극복 능력을 가늠하게 해 준다. 그러나 지나친 간섭은 대학의 자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교훈을 상기해 정부와 대학 간의 합리적인 관계를 유지하려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대학 구성원들의 합심된 노력과 교육적인 열망은 위기를 성장으로 뒤바꾼 원동력이다. WTO 체제에 대해 중국의 고등교육계에는 위기감이 고조되었으나, 대학의 구성원들의 단결력과 자신이 속한 대학을 세계적인 대학으로 성장시켜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는 노력은

12) 입시교육이나 경쟁위주의 교육을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의 인성교육이나 전인교육에 해당함. 소질교육에 관해서는, 崔相錄(1997) 참조.

괄목할만한 성과를 가져올 것이다. 만약 한국이 대학구성원들 간의 이해와 요구가 달라 대학발전계획의 장애를 경험했다면, 구조조정과 통폐합 등을 경험하면서도 학교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한 중국의 자세는 배울만하다. 한편으로, 세계일류대학계획에 선정되지 못한 대학의 구성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으므로,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장기적 정책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장기적인 교육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미래의 성과를 기대하는 세계일류대학계획은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준다. 한반도의 통일 이후를 고려하여 고구려사를 중국의 소수민족사에 포함시키려는 동북공정(東北工程)처럼, 세계일류대학계획은 먼 미래를 내다보고 추진하는 교육계의 거대한 국책사업이다. 만약 한국이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여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교육성과에 집착했다면, 장기적으로 추구하는 바가 무엇이고, 단계적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를 계획하고 있는 중국의 모습은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세계적인 대학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집중적인 투자와 지원으로 '육성'해 가는 모습과 복잡한 정세 속에서도 스스로의 원칙과 계획을 지켜나가는 자세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참고문헌

- 유경희(2004). 한국과 달리 중국은 학부모평가에 긍정적이다 - 중국의 교사평가제도. *교육개발*. 31(3). 57-61.
- 이남주(2002). 중국의 부실한 공교육. *교육비평*. 10(겨울). 255-263.
- 최영표, 구자억, 손계림(2002).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로의 변혁에 따른 중국고등교육의 개혁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 29(2). 81-112.
- 이준(2003). 한국 어디로 가나 - 중국의 대질주(5). *조선일보*(10월6일). 인터넷판(경제).
- 기사(2004). 中, 노벨상수상 멀지 않았다. *중앙일보*(5월31일). 10.
- 顧明遠(2000). *跨世紀創新人才培養國際比較*. 北京: 人民教育出版社.
- 蔡克勇(1997). *我國高等教育體制改革及其綜合效益分析*. 北京: 人民教育出版社.
- 崔相錄(1997). *素質教育—中小學教育改革的主旋律*. 濟南: 山東教育出版社.
- 張劍杰(2003). *試論教育督導的反饋*. 北京: 教育科學出版社.
- 張向晨(2000). *發展中國家與WTO的政治經濟關係*. 北京: 法律出版社.
- 中國教育部 人事司組織(2002). *學校管理理論與實踐*. 北京: 北京師範大學出版社.
- 吳松, 沈紫金(2002). *WTO與中國高等教育發展*. 北京: 北京理工大學出版社.
- 熊思遠(2000). *WTO與中國基礎教育*. 北京: 北京理工大學出版社.
- 袁振國(2003). *中國教育政策評論 2003*. 北京: 教育科學出版社.
- 姜德波(2003). 統一市場和轉型期中國市場分割問題研究述評. *教學與研究*. 299(9). 49-54.
- 吳林海, 應瑞瑤(2003). 論加入WTO後我國技術模倣創新問題. *教學與研究*. 298(8). 39-47.
- 袁貴仁(2002a). 建設社會主義高水平大學的動員令—學習江澤民同志關於建設一流大學的論述. *求是*. 186(7). 5-12.
- 袁貴仁(2002b). 什么是一流的辦學條件?
<http://www.moe.edu.cn/zhuanti/1stdaxue/2.htm>(검색일 : 2004. 6. 23).
- 中國教育部 高等教育司(2000). *新世紀高等教育教學改革工程*. 教發. 第1號(1月13日).
- 中國教育部 教育管理信息中心(2004). *關於舉辦園丁杯教育信息化知識競賽的通知*. 教信息中心. 第11號.
- 中國教育部(2001). *普通高等學校教育評估試行規定*. 中國教育部令. 第14號(1月1日).
- 中國教育部(2004). *中華人民共和國中外合作辦學條例實施辦法*. 中國教育部令. 第20號(6月2日).
- 中國教育部通知(2004). *普通高等學校基本辦學條件指標(試行)*. 教發. 第2號(4月7日).
- 기사(2001). 21世紀: 建設一個什麼樣的高等教育. *中國教育報*(2월16일). 1.
- 기사(2002). 我們怎樣建設世界一流大學?. *中國教育報*(3월12일). 4.
- 기사(2004). 2004年中國大學排行榜出爐—清華大學蟬聯第一. *中國教育報*(5월30일). 1.

江澤民(1998). 在慶祝北京大學建校一百周年大會上的講話.

<http://www.moe.edu.cn/zhuanti/1stdaxue/1.htm>(검색일 : 2004. 7. 14).

管培俊 (2003). 關於教師教育改革發展的十個觀點.

http://www.moe.edu.cn/jsduiwu/refurbish_info/040211.htm(검색일 : 2004. 6. 29).

중국교육부 홈페이지 (2003). 92年以來大學合併情況.

http://www.moe.edu.cn/highedu/gxtz/gxhb_20030417.xls(검색일 : 2004. 7. 12).

중국교육부 홈페이지 (2004). 中國15所一流大學. <http://www.moe.edu.cn/highedu/news>(검색일 : 2004. 7. 16).

중국교육부 홈페이지 (2004). 北大清華人大北師大校長談創世界一流大學.

<http://www.moe.edu.cn/edoas/website18/level3.jsp?tablename=523&infolid=4412>(검색일: 2004. 9. 3).

* 논문접수 2005년 4월 3일 / 1차 심사 2005년 5월 3일 / 2차 심사 2005년 6월 3일

* 박영진: 침례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중국의 北京師範大學 國際與比較教育研究所에서 비교교육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대진대학교 교직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주요 저서로는 "공자에서 노신까지(삼경)", "중국교육사상가(장서원)" 등이 있다.

* e-mail: yongzhen@hanmail.net

Abstract

China's Joining WTO and the Project for Worldwide Prestigious University

Park, Young-Jin*

The Project for Worldwide Prestigious University is Chinese national policy on which the government concentrate its energies, in order to reform the higher education. Owing to the transition to Hu Jin Tao's system and the friction between district governments, minority races and universities, however still not open to the public, the Project is the core work of the higher education reform in progress. Especially, this Project is the measure by which it can be judged whether China, whose seclusion has been criticized, can enter the international society smoothly through education opening.

The Project for Worldwide Prestigious University, making it a rule to half open to the public, succeeding to 211 project and 985 project, has been materialized under WTO system. This study examined the Chinese Ministry of Education's policy which is driving forward the Project smoothly, overcoming the educational imbalances and the interests between universities. This study referred to both official and unofficial documents of Chinese Ministry of Education by the method of documentary survey. And considering the distinctiveness of Chinese government that is unwilling to open its national policy to public, this study also took the methods of phone calling, writing letters, interviewing with public servants and experts, and so on.

This paper intended to seek for the precedent of Korea, which is under active discussion of the WTO system from the educational point of view, through Chinese Project for

* Daejin University

Worldwide Prestigious University. It would be suggestive to us that Chinese government does not just wait a worldwide university, but supports and invests enough money in universities in order to develop them by planning thoroughly and maintaining its principles in spite of the complicated situations.

Key words: Project of Worldwide Prestigious University, higher education reform, Chinese education